

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

< 보도 내용 (TV조선, 10.12) >

◆ [단독] 세계적 건축가 양성한다고 30억원 쓰고도 '부실'

○ '취업 허탕·재탕'에 공모전 수상도 3건 불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'19년부터 청년 건축학도들의 건축 설계 역량을 강화를 위해 엄격한 선발을 거쳐 해외연수 및 해외 건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해외 유수의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인턴십에 합격하여 해외 연수 역량을 검증받아야 하며,
 -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체재비 외 항공료, 비자발급 수수료 등 해외연수 비용(실비)을 1인당 최대 3천만원(12개월)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'20년 이후 코로나-19 팬데믹으로 인한 입국제한 등으로 출국이 지연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,
 - '23년부터는 연수선발자들은 미국, 독일, 네덜란드 등 연수 국가로의 출국을 재개하여 해외 연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
- 동 사업은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, 연수 종료 후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높아 연수 이후 취업 증가의 효과를 단기간에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,
 - 동 사업의 선발 준비 과정 중에 해외 건축설계사무소 인턴에 합격한 지원생들의 경우 재직기관과 연수기관이 동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.

- 장기적으로는 해외 연수생들이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정책 성과('19~'24년)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연수효과의 확산을 위해 연수완료생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시스템 등 사회 공헌 활동, 성과공유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,
- 연수생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연수 수행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수준이 미흡한 경우 지원을 중단토록 하고 있으며, 최종연수 결과보고서의 공개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	책임자	과 장	안광열	(044-201-3775)
		담당자	사무관	권지희	(044-201-3778)

